

전북도-금감원 손잡고 금융사기 피해 막는다

업무협약...농어촌 지역·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방·홍보 강화 올들어 보이스피싱 1372건 발생 45% 증가 피해액만 77억원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지역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나섰다. 전북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8월)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은 13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4건보다 45.3%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인 1491건을 육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8월 현재 77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3억원은 물론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액인 69억원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특성상 철저한 피해 예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전북도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현)은 지난 12일 전북도청에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은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교육과 조례(가칭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된 도내 농·어촌 등 소외지역,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뵙고 알려드리는 현장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

용사기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전라북도가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전북의 현안인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지와 협력도 당부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25억 들여 치매전문병동 추진

시립요양병원 건물 증축공사 내년 6월 준공 목표 64병상 규모...가족교육실·환자감시장치 등 구성

정읍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위해 정읍시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정부예산을 확보해 설계용역, 보건복지부 시설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치매전문병동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치매환자에게 의료서비스·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등 치매환자 보호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이 강화될 예정이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공립요양병원 중 인력·병상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프로그램실 확충,

치매 진단·치료 장비 등의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가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은 25억5375만원(국비 20억 4300만원, 시비 5억1075만원)이 투입돼 3층 규모의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해 분과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치매병동은 1층에는 가족교육실과 프로그램실로 구성되며, 2층과 3층은 치매환자 입원실로 10병실 36병상이 들어서 기존 28병상을 포함해 64병상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환자 감시장치 9종 157대의 의료장비를 구축해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맞춰 치



정읍시 금봉1길에 있는 정읍시립요양병원. 정읍시는 이 병원에 치매병동을 증축할 계획이다. (정읍시 제공)

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해역 총 50억 투입 해삼 서식장 조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비안도 인근 인공어초 등 설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와 군산시가 오는 2020년까지 군산지역 해역에 총 50억원을 투자해 해삼 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새만금과 신항만 개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16억원(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군산시 비안도 해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 시설, 해삼 종자방류 등을 통하여 해삼 서식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어 2019년 16억원, 2020년 18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별 맞춤형 수산자원 조

성(해삼 서식장)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삼을 10대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 중으로, 이번 해삼 조성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하두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장은 "해삼 서식장 조성사업을 통한 지속적 생산 체계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연계사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연말연시 음주운항 하지 마세요"

군산해경 내년 1월13일까지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 운항을 특별 단속한다.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경찰력을 총동원해 선상, 해상, 항·포구에서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음주 예방을 위해 선내 주류반입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전북 해상에서는 매년 5건 이상의 음주 운항이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황경도 북쪽 해상에서 9.7t급 조개잡이 어선 선장이 술을 마시고 선원에게 운항을 지시했다가 입건되기도 했다.

김대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삼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기준을 넘을 수 있다"며 "음주 후 후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술을 마시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진도 藥 대파축제' 내일 개막

군내면 금골마루 커뮤니티센터 일원서...특산품 전시·판매 등

'진도 약(藥) 대파 축제' <포스터>가 15일 진도에서 열린다. 진도군에 따르면 군내면 금골리 금골마루 커뮤니티센터 일원에서 진도 대파를 활용한 체험, 이벤트, 특산품 전시·판매, 요리 시연·시음회 등을 연다. 군내면 농민회, 이장단, 심축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로 구성된 금골마루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진도 대파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 판매·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축제에서는 대파 구이, 대파 김치와 대파 장아찌 담그기, 대파전 등 대파로 만든 요리 시연과 대파 까기·대파 튀기·대파 찧기 경연도 열린다. 약대파뿌리차, 진도홍주, 울금 막걸리 시음을 비롯해 진도 대파와 진도 겨울채소 특산품인 쌀 배추, 봄동 등도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 대파 재배면적은 1223ha로 연간 생산량은 5만여t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순천시, 신청사 건립 시민 의견 수렴 등 본격 활동

순천시가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나섰다. 1979년 건립된 순천시 청사는 1995년 승주읍과 순천시가 통합되면서 공간이 부족해 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른 부지에 신청사 건립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시민 여론이 엇갈리면서 신축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인 2016년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 청사를 중심으로 인근 주택과 상가를 매입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약 1500억원이다. 예정대로 청사 건립이 진행되면 2024년 상반기 입주하게 된다. 순천시는 최근 시민과 청사 편입예정

부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순천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위치를 확정하기로 했다. 건립 부지는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건립 규모 등 기본계획은 6월경 확정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정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 모두 현 위치에 청사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장소를 찾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해남군,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긴급 상황실 운영

해남군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응급대처를 위해 상황실 등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4개조로 운영되며, 대행업체 8곳을 지정해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수도시설 동파 피해는 252건이 발생했다. 관로파열 10건, 계량기 동파 153건, 가정 내 내부수도관 결빙 89건 등으로 조사됐다. 군은 동파 예방을 위해 홍보 안내전단지 제작해 수도계량기 점검시 직접 배

포하고, 해남군 홈페이지와 해남소식지, 읍·면 이장단 회의시나 마을방학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광역배수지 6개소와 지방상수도 2개소, 가정급수시설 1만 8682개소에 대한 동파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파예방 등을 통해 겨울철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문의. 010-6834-7400